**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나라꽃 - 무궁화**

한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양합니다.

국기와 국가는 물론 국가별 문장들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의 자연속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선택하곤 하는데… 국화나 국목 또는 국조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조는 북아메리카 특산종인 ‘흰머리수리’ 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도의 경우 공작새를 국조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캐다나의 경우는 국기에도 있는 사탕단풍나무를 국목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도 은행나무를 깊은 불심의 나라 부탄은 삼나무를 국목으로 삼고 있지요.

이런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중에서도 국화는 국기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國花)**

무궁화(無窮花). 학명은 Hibiscus syriacus(Althaea frutex) 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싱가폴, 타이완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근화(槿花)라고도 합니다.

옛날부터 쓰여 오던 무궁화라는 한글명은 16세기부터 나타나는데 한자로는 목근화(木槿花)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목근화 → 무긴화 → 무깅화 → 무궁화의 형태로 변했으며 여기에 뜻이 좋은 무궁화(無窮花)로 차음(借音)하여 표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내한성](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612)(耐寒性)으로 높이 2∼4m이고, 간혹 거의 교목 정도로 자라는 것도 있으며, 전체에 털이 없고 많은 가지를 치며 주로 회색을 띕니다. 잎은 늦게 돋아나고 자루가 짧고 [마름모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0465) 또는 달걀모양으로 길이 4∼6cm, 너비 2.5∼5cm며 크기로 얕게 3개로 갈라지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습니다. 표면은 매끈하나, 잎 뒷면에는 털이 나 있습니다.

꽃은 보통 홍자색 계통이나, 흰색·연분홍색·분홍색·다홍색·보라색·자주색·등청색·벽돌색 등도 있으며, 반드시 새로 자란 [잎겨드랑이](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193)에서 하나씩 피고 대체로 종(鍾) 모양이며 자루는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7~10월경 개화하며, 그 기간이 길어 주로 조경 또는 분재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는 태극기나 애국가와 함께 나라꽃으로 우리나라 3대 표상물로 여겨지고 있으나, 태극기와 애국가와는 달리 제정, 채택, 공포 등에 대한 확실한 법령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속의 무궁화**

한국에서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진(東晉)의 문인 곽복(郭璞:276~324)이 쓴 지리서(地理書) 《[산해경](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838)(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고전인 《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君子之國地方千里 多木槿花)’라는 기록도 있고요. 한국에서 자생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상에서 보면 4세기 중엽의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무궁화가 한국 자생(自生)인 것으로 믿을 만 할 듯 합니다.

이밖에도 [최치원](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476)이 [당나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0239)에 보낸 국서에서 신라를 [근화향](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9592)(槿花鄕:무궁화의 나라, 신라를 뜻함)이라 하였고, 《[구당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4187)》에도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희안](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7487)의 《[양화소록](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4532)》에 중국에서 한국을 근역(槿域)이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려 예종(睿宗)은 고려를 ‘근화향(槿花鄕)’이라고 하였다.

무궁화는 주로 [자가불화합성](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225) 식물(自家不和合性植物)이므로 오랫동안 수많은 잡종 또는 변이(變異)에 의한 품종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래종으로서 볼만한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여러 차례의 외환(外患)이 있었던 것과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764)에 일제가 무궁화가 조선의 국화라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뽑아 없애버림으로써 큰 수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꽃나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역사 어디에서고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1950년대부터 [서울대학](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284) 농과대학 화훼연구실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육종(育種), 세계적인 원예품종의 도입과 일반재배법의 개발 등이 시작되었고, [산림청](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437) [임목육종연구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880)와 [농진청 원예연구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246)에서도 무궁화 육종에 착수하여, 1972년 역사상 처음으로 약 100품종의 무궁화를 전시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현재 무궁화는 정부와 국회의 표장에서 도안화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태극기가 국기가 법으로 제정된 이후, 국기봉을 무궁화 꽃봉오리로 지정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국화**

일반적으로 나라꽃 국화는 그 나라의 자연·풍토·역사·문화와 관련이 깊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개중에는 법령으로 이를 제정하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국화가 법령으로 정해진 국가>

콜롬비아 - 카틀레야(Cattleya) : 1937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화로 제정

베네수엘라 - 카타세튬 필리아툼(Catasetum pileatum) : 1978년 국화로 제정

이밖에는 법령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식물을 국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국화가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는 국가>

영국 – 잉글랜드 : 장미 / 웨일즈 : 부추 / 스코틀랜드 : 엉겅퀴 / 아일랜드 : 토끼풀 등

중국 – 매화 또는 모란

일본 – 벚꽃

프랑스 – 붓꽃과 백합

독일 – 수레국화

북한 – 함박꽃나무

인도 – 연꽃

이탈리아 – 데이지

러시아 – 해바라기

미국 – 주별로 주를 상징하는 주화(State flower)가 있으며, 이것 또한 때때로 변경됨

또는 한 개의 꽃이나 식물이 여러국가의 국화로 알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국화를 사용하는 국가>

에델바이스 – 스위스 , 오스트리아

방울꽃 – 스웨덴, 핀란드

국제연합(UN)j에 가입된 독립국 중에서 국화를 제정하고 있거나 가진 국가는 많지 않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화를 법으로 제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상식 한토막>>>>>

요즘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벚나무. 일본의 국화이기도 한 벚나무의 원산지는 사실 한국, 그것도제주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벚나무가 일본의 국화이기에 많이 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고백하건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ㅡ ㅡa

벚나무를 볼때마다, 일제시대의 잔재마냥 남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벚나무, 영문명(Cherry Blossom) 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서식지가 한국, 일본, 중국 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왕벚나무의 경우, 제주도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벚나무가 일본에 옮겨져 갔고, 1901년 당시 도쿄에서 일본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국제 학계에 원산지가 일본인 것으로 보고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제주도의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되고, 많은 일본 학자들이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33년 당시 저명한 일본의 식물학자인 고이즈미 겐이치(小泉源一)는 [일본 사쿠라의 한국 기원론]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당시 일본은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어차피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없이 발표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이후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왕벚나무는 일본산’ 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학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왕벚나무가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꽃임을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라며 “젊은 학자들도 그런 학설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김찬수 박사는 일본사람들이 원래 화려한 벚나무를 좋아했는데,

일본인들은 그 왕벚나무를 품종개량하여, 개량된 왕벚나무를 한반도 곳곳에 심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한반도에 신작로를 세우면서 ‘가로수’의 개념이 없던 우리나라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벚나무를 관상용으로보다는 목재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 중 상당수가 벚나무로 만들어졌고, 문서보관함 등으로 벚나무가 사용됐었을 뿐, 궁궐정원이라던지 도로변에 줄지어 심어 관상용으로 즐겼던 전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왕벚나무를 일본산이 아닌 제주도산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 제주도의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됐고, 1965년 왕벚나무 자생지 2곳이 천연기념물로 등록됐습니다.

2001년에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분자유전학연구실에서 한·일 왕벚나무를 대상으로 디옥시리보핵산(DNA)지문분석을 벌인 결과 한라산이 원산지인 사실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글 정리 및 작성. 전략기획팀 이미선 과장

자료출처 : 두산백과